

70년대생 첫 여성 대기업 회장 탄생... 재계 27위권 예상

정유경 (주)신세계 회장

백화점 부문 관련 전반 진두지휘
이마트-신세계 계열분리 공식화
공정거래위서 '총수' 지정 가능성
신세계그룹은 12위권, 한단계 하락



정유경 신세계 회장. /신세계그룹

신세계그룹이 지난 30일 임원인사를 단행하면서 정유경(주)신세계 회장이 백화점 부문 관련사업 전반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이로써 70년대생 첫 여성 대기업 회장이 탄생했다.

31일 한국CXO연구소는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의 회장 승진과 관련해 1970년 이후 출생한 대기업 회장 중 첫 여성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달 국내 주요 200대 그룹과 60개 중견기업을 조사한 결과, 70년대생 이후 회장 31명이 모두 남성으로 나타났다.

1972년생 정유경(주)신세계회장의 이번 승진은 재계에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부회장을 건너뛰고 총수 계열에 합류했다는 데에도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정유경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장녀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

장의 동생이다.

정유경 회장은 1988년 예원학교를 졸업한 후 1991년 서울예술고등학교를 나와 같은 해 3월 이화여자대학교에 진학해 비주얼 디자인을 전공했다. 이후 1992년 미국 로스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 입학해 1995년 졸업했다.

신세계그룹에 입사한 것은 이듬해인 1996년이다. 조선히otel 상무로 입사한 이후 2009년 신세계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15년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승진했다. 그의 회장 승진은 9년만이다.

이번 정유경 회장의 승진을 통해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와 신세계의 계열분리를 공식화했다.

신세계그룹은 "정유경 총괄사장의 회장 승진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계열 분리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유경 회장은 오빠인 정용진

회장과 각각백화점부문과이마트를분리해서 경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센터빌리티,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사이먼, 신세계디에프,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을 맡게 된다.

정용진 회장은 SSG닷컴, 신세계프라퍼티, SK컴퍼니, 조선히otel&리조트,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I&C를 총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경 회장을 새로운 그룹의 총수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18개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어 독자 그룹으로의 기반을 갖췄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유경 회장이 이끌게 될 그룹의 공정자산은 19조원 규모로, 재계 순위 27위권 진입이 예상된다.

현재 62조원대 자산의 신세계그룹은 분할 후 정용진 회장의 기존 그룹 자산인 40조 대로 줄어 재계순위도 12위권으로 한단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유경 회장이 미등기 회장직을 유지할지, 대표이사로 전면에 나설지에 대해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룹 방향성에 따른 경영 스타일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분리 독립이 본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수익성 강화 측면에서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분석하면서도, 과거 계열분리로 그룹이 축소된 사례도 있어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명희 총괄회장이 재계의 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불협화음을 교훈 삼아 사전에 그룹 분리를 명확히 했다"며 "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81세인 이명희 총괄회장의 고령화와 50대인 남매의 충분한 경영 연륜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이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정의선 "수소 전환은 미래세대 위한 것"

>> 1면 '정몽구·정의선'서 계속

다시 5년 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전용 모델 '넥쏘'를 출시, 현재 수소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대를 이어 수소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 회장은 올해 초 CES에서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인 'HTWO'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그룹

사 역량을 결집해 수소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재훈 사장은 "현대차는 온 역량과 마음을 다해 올곧은 신념으로 누구나, 모든 것에, 어디에나 수소가 쓰이는 세상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며 "수소는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일 뿐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따라서 공평한 에너지"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의 수소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산업 생산·소비 동반감소... 반도체 감소폭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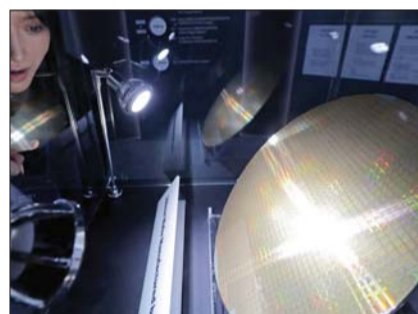
통계청, 9월 산업활동동향
전산업 생산지수 113.6... 0.3% ↓
8월 증가 후 한달만에 마이너스

지난 9월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가 함께 줄어들었다. 8월에 증가했으나 한 달 만에 반전됐다. 특히 제조업 생산에서는 반도체업종 감소폭(-2.6%)이 커 전반적인 산업생산 후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全)산업 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월대비 0.3% 하락했다.

생산은 지난 8월 1.3%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서비스업과 광공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든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광공업 생산의 경우 -0.2%였는데 이 중 반도체는 -2.6%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7%, 건설업은 -0.1%로 집계됐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 등이 감소를 이끌었다.

전산업 생산은 4월(+1.4%)에 증가



지난해 10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2023'에 웨이퍼(집적회로 제조용 얇은 판)가 전시돼 있다. /뉴스1

한 이후 5월(-0.8%), 6월(-0.1%), 7월(-0.6%)에는 3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이후 지난 8월(+1.3%) 증가했지만 한 달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 달인 8월과 비교해 0.4% 감소했다.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재(+6.3%)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화장품 등 준내구재(-2.5%),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3.2%)에서 판매가 줄었다.

백화점 소비는 증가한 데 반해, 슈퍼마켓·잡화점·대형마트·면세점·편의점 등지의 소비는 감소했다. 이 같은 소매

판매는 올해 4월(-0.6%)과 5월(-0.2%) 2개월째 감소한 뒤 6월(+0.9%) 증가로 전환했지만 7월(-2.0%)에 다시 감소했다. 이후 8월(+1.7%) 다시 늘었다가 또다시 뒷걸음질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하면 제조업은 '플러스'로 나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며 "반도체 제조업 등이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 등의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많고 수출도 잘 되고 있어, (호조세) 흐름이 꺾이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8.4% 늘어났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5.6%) 감소한 후 4월에는(+1.6%) 증가했다가 5월(-3.6%)에 다시 감소했다. 6월(+3.5%) 오르며 증가 전환한 후 7월에는 항공기 수입 등 운송장비 투자가 크게 늘면서 +10.2% 증가를 기록했다. 8월(-5.1%)에는 다시 줄면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경제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범용인공지능 시대, 공존법 모색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오는 11월 20일(수) 오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인공지능(AI)이 가속화하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과 공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AI를 필두로 확장현실(XR),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루는 기술들이 융합되며 초연결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거주 환경과 노동주체는 물론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변화하며 미래 생태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초현실사회: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AGI 시대의 공존법을 모색하고 산업과 기업에 일으킬 변화상을 공유합니다.

- ◆ 주 제 : 초현실사회: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 ◆ 일 시 : 2024년 11월 20일 오후 2시~5시
-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 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metroseoul.co.kr)
- ◆ 문 의 :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기조강연 : 유성준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원장(컴퓨터공학과 교수)
- ◆ 강 연 : 김현배 답파인 대표
이근우 화우 법무법인 시엔터(변호사)

"체코와 내년 3월 원전계약, 차질없어"

佛·美 경쟁사 입찰 이의제기에
체코, 한국 원전계약 일시보류

체코 반독점 규제당국이 신규 원전건설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를 접수해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으나, 우선협상당사자인 양국 전력 당국의 내년 3월 최종 본계약 협상은 차질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반독점 규제당국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국 입찰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 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진정을

접수한 결과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은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으나, 체코 수출모델은 독자 개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계약 일시 보류 결정에 대해 체코 반독점 규제당국은 "EDF(프랑스 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는 표준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최종 결론을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

했다.

체코 전력공사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체코 전력공사는 이날 SNS에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되는 안된다"며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수원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며 "계약협상은 이번 예비조치 명령과 관계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 따라 2025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